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British Columbia 주 밴쿠버 지역의 중간~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하거나 조금 큰 정도이지만 평지에 위치해 있는 점이 순천향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시설은 캐나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잘 갖추었기에 자동시스템이 많고 화장실이나 교실 등도 쾌적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당시에 학교는 학기말 시험기간,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조용했다.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는 해당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지만 불편을 겪진 않았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대학교 자체제작 교재를 기본으로 반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졌다. 영어 입문자 반에서는 기초를 잡는 위주의 수업을, 중급자 이상의 반에서는 회화실력향상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다. 강사자들도 반의 수준에 따라 알맞게 배정되었다. 수업준비 할 게 많거나 과제가 많은 건 아니다. 반에 따라 글쓰기 과제를 내주거나 홈스테이 가족들 인터뷰 등의 가벼운 과제를 내주는 정도이다. 프로그램 둘째 주에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수업을 진행하는데, 발표관련 준비도 학교 수업시간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Activity는 Discover Vancouver, Kayaking, Aquarium, Museum, Whistler Trip, 총 5번 이루어진다. Activity 내용은 이름 그대로이다. 짐을 쌀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건 편한 운동화, 모자(이왕이면 빙거지 모자), 선크림 그리고 들고 다니기 편한 가방(힙색 추천) 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Kayaking의 경우 활동하는 동안 햇볕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젖어도 되는 긴 팔, 긴 바지를 추천한다. 신발은 젖어도 되는 샌들을 추천한다. Activity 동안 추가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다만, 개인적으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간식 등을 사 먹기위한 용돈 정도는 챙겨 가길 추천한다. 하지만 많은 돈을 들고가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한국의 8월 날씨와는 사뭇 다르다. 캐나다의 여름은 한국의 가을과 더 비슷하다. 건조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기 때문에 반팔보다는 긴 팔과 얇은 겉옷을 더 필요로 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프로그램 참여 시 많은 주의를 받을 테지만 치안은 한국보다 좀 더 위험하다. 소매치기를 당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항상 소지품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밤 9시쯤 해가 진 후부터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밤 9시 이후에 집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걸 추천한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개인적으로 홈스테이 배정을 잘 받아 프로그램 내내 불편함 없이 지냈다. 불편함을 굳이 꼽자면 샤워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온수탱크를 사용하는 캐나다의 상황을 고려해 우리가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홈스테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경우에도 학교 Activity를 갈 때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싸 달라고 부탁하였고, 적극 수용해 주셔서 불편함을 덜 수 있었다. 추가로 빨래는 일주일에 하루만 하는 집이 많으니 이 점 고려해서 짐을 싸는 걸 추천한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주중에 학교생활을 할 때에는 홈스테이 패밀리가 싸준 점심을 먹었고, 학교 후 집에 일찍 돌아가게 되면 홈 패밀리가 해 주신 저녁을 먹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에는 친구들과 외부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캐나다가 한국보다 부지는 넓지만 대중교통 수단은 제한적이다. 이동수단으로 시내버스와 Sky line이라 불리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고, 애매한 거리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다. 택시 요금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용해본 적이 없다. 버스 운행 주기가 기본 20분은 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시간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추천한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약 30 만원	외부식당 (평일저녁, 주말 점심저녁, 카페, 펍)
옷 구매비용	약 50 만원	기념품 겸 긴 옷 준비 못해 추가로 구매
선물 구매비용	약 20 만원	꿀, 아이스와인, 쿠키 등
합계	약 100 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 대략적인 캐나다 날씨 정보를 검색해보고 한국과 비교해 자신에게 필요할 옷을 챙겨가면 좋겠다. - 가벼운 긴 옷과 얇은 겉 옷은 꼭 챙기길 추천한다.
- 홈스테이 배정결과가 나오면 홈스테이 생활과 관련해 될 수 있는 대로 호스트 패밀리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가는 걸 추천한다. - 집안 내 규칙이 있는지, 빨래용품/샤워용품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개인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등
- 휴대폰은 와이파이 도시락보단 유심칩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
- 본인 귀중품(여권, 현금 등)은 따로 보관해주거나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스스로 잘 챙기고 보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먼저 날씨예보를 확인했음에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옷을 적절히 챙겨가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 후회된다.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 적합할 옷들을 잘 선별해서 가져가길 바란다.

3주라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가기 전에 질리도록 들었음에도 직접 느껴보니 정말 한 순간임을 깨달았다. 하루하루가 아깝지 않게 하고 후의 시간도 알뜰하게 활용한 나와 내 친구들이었지만 모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이야기했다. 아직 밴쿠버 내에서만 해다가보지 못한 곳이 많은데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아쉬웠다. 혹시라도 미국에 다녀올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면, 3주라는 기간이 밴쿠버 한 곳만 둘러보기에도 부족한 기간이니 미국에 다녀올 시간에 밴쿠버의 한 구석을 더 둘러볼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 -물론 미국으로의 여행은 제한된다-

이번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내가 본 가장 큰 이득은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친구들을 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친구들과 교류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생각의 크기를 넓힐 수 있고, 미래의 활동 범위를 세계로 넓힐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유독 많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학생들이 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다. 우리는 그 학생들과 많이 친해져서 재밌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고 여전히 연락하며 지낸다. 다른 나라 친구를 사귀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추천한다. 참고로 캐나다 학생들을 만나는 건 어렵다. 그곳 학교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조차 어렵다. 캐나다 학생들과의 교류를 꿈꿨다면 미리 포기하는게 좋을 듯하다.

사실 3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큰 영어실력 향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그곳의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직접 그곳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보고,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며 캐나다의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길 권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해보길 바란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3주간 지냈던 홈스테이 집이다.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다.	홈스테이 패밀리와 함께 간 캐나다-미국 국경지역이다. 꽃으로 만든 캐나다 국기가 너무 예뻐다.
	
Granville Island에서 사 먹은 랍스터.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었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다.	간호학과 친구들과 함께 English Bay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행복한 추억을 남겼다.



빅토리아 아일랜드 BC주 의사당에서 찍은 사진.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느라 피곤했지만 날이 개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Whistler Trip을 마치고 저녁으로 먹은 Wendy's 햄버거.
사이즈를 몰라 Medium으로 시켰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커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